

# 전북도, 조사료 전문단지 지정 공모 선정

### 조사료 전문단지 확대 운영 안정적 조사료 생산·공급 기반 마련 전문단지 3개소 1684ha 추가선정, 총 13개소 8156ha 규모로 운영

전북도는 익산군산축협, 고창부안축협, 익산조사료영농조합법인 3개소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조사료 전문단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재배지역의 집단화와 규모화를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3개소 1,684ha를 추가 선정하여 총 13개소 8,156ha의 조사료 전문 생산단지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는 도내 조사료 재배면적의 약 35%를 점유하고 있고 전국 조사료전문단지 23,908ha의 34% 규모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사료전문단지를 확

대 운영함으로써 매년 15만톤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물론,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종자 및 퇴·액비 등을 전문단지에 일괄 지원하며 또한 일반 재배지보다 국비 보조비율이 10~20%가 높아 그만큼 지방비와 자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에서는 매년 2억3000ha(전국 재배면적 130천ha의 18%)에서 약40만톤의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축산농가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새만금에서도 내부개발 시행전에 한시적으로 950ha의 사료작물을 재배 노출부지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품질이 균일한 조사료를 생산·공급하는 등 유휴지 활용을 통한 경종농가의 소득창출 및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김진성기자



초등교장협의회 하계 연수회

지난 17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에 송하진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송성환 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학생들의 공연을 보며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

### 평균 공급비용 1.17% 인하·주택용 기본요금 동결 도내 물가안정·지방 공공요금 안정에 도움 기대

전북도는 지난 1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소매요금)을 1.17% 인하, 주택용 기본요금은 월 75원으로 동결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전북도는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지난 5월에 외부 회계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2017년도 도시가스 판매량이 소폭 증가하고 공급설비 투자비 정산에 따라 소폭의 공급비용 인하요인이 발생하여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인하는 2018년 9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월평균 50㎡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공급비용(소매요금)은 전주지역 기준 연간 1,200원 정도의 연료비 절감이 기대되며, 가스사용량이 많은 산업체도 원가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구성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도매요금(원료비, 87%)과 도시가스의 소매비용(공급비용, 13%)으로 구성되며,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

도입가격 연동제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승인 조정하고 있으며, 소비자 요금은 도시가스 승인사항으로 매년 1회 조정하여 소비자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급비용 인하가 도내 물가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로 도민의 에너지 사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해소 등을 통하여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의암주논개 순국 425주기

### 장수군, '논개따라 삼백리' 성황리 열어

의암주논개 순국 제425주기를 기념해 의암주논개기념의 우국 충절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논개따라 삼백리' 행사가 지난 18일 3개 시군(장수군, 진주시, 함양군)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장수에서 태어나 꽃다운 19세 나이에 진주에서 우국충절의 마음으로 생을 마칠 때까지의 발자취를 따라 그 생을 더듬어 보며 민족열 정신을 이 시대 정신에 비추어 본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행사는 진주시 축석루에서의 헌다례, 고천문 낭독, 진주 교방 무 등을 시작으로 함양군 논개기념소에서 고천문 낭독, 헌다례를

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수군 한누리전당에서 기념식 및 논개를 주제로 한 총체극 판소리 등 공연이 진행됐다.  
전라북도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기념식 축사에서 "우국충절의 상징인 의암주논개님의 정신이 전국적으로 선양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영수 장수군수는 "논개따라 삼백리 행사가 짧은 인생을 불꽃처럼 살다 간 논개님의 발자취와 고귀한 애국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관을 계승 발전시키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전주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의 비전 설정과 중점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16일 실무 TF 팀과 학술 용역대(양영란 전북대 간호대학 교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년) 수립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및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지역 현황과 건강 수준, 주민의 관심,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시는 제7기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누구나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도시'로 정하고, 건강한 시민 안전한 전주를 목표로 지역 보건의료계획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다양한 분야간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안전망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폭염과 기후변화 등 건강위험요인관리 △고령화대응체계 △소외계층 건강관리 △자살 예방을 포괄한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한, 시는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예정이다.  
시는 △감염병 감시체계강화 △전(全) 생애 주기 결핵관리 △예방접종을 향상 △요양기관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준상 전주시보건소장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 업무에 국한된 업무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내실 있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 원광대, 청년TLO육성사업 오리엔테이션

올 청년TLO육성사업에 선정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최근 사업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첫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88억원을 지원 하는 '청년TLO(Technology Learning Office, 대학기술이전조직)육성사업'은 이공계 미취업 학사 및 석사 졸업생을 6개월간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으로 원광대는 총 80명의 청년 TLO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8월 말까지 추가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채용인력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은 지난 13일 학생지원관 산학교육강의실에서 열렸으며, 오인권 LINC+사업단 기업지

원센터장의 사업설명에 이어 사업 참여자에 대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원광대 산학협력단과 LINC+사업단은 청년 TLO들의 연구실 배정 및 업무분장과 더불어 우수기술 발굴부터 기술이전 마케팅, 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술이전사업과 업무 프로세스를 매뉴얼화 할 계획이다.  
송문규 원광대 산학협력단장은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도 일자리 확대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매우 기쁘다"며, "기술이전 전문가로 활약할 청년 인재를 양성해 지역사회의 산학협력 성과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 완주군, 민선7기 매니페스토 특강 열어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민선7기 성공적인 공약실천을 위해 나섰다.  
지난 17일 완주군은 공약사업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 성장사회와 로컬 매니페스토'라는 주제로 민선 7기 매니페스토 특강을 열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민선7기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약실천계획서 작성요령, 타 지자체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정책공약 방향, 매니페스토 운동 등에 대

해 강연했다.  
완주군은 이번 매니페스토 특강을 통한 공약사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와 함께 민선7기 공약사업 조기완수를 위한 밑거름을 다지고 있다.  
특히, 공약실천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를 기하며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다.  
부서별 공약사업 실천계획안은 주민배심위원과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통한 조정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